

# “투수들 몸상태 좋아” 이범호 감독 ‘행복한 고민’



KIA 타이거즈의 조상우(오른쪽부터), 김범수가 2일 일본 아마미오시마 아마미 구장에서 불펜피칭이 끝난 뒤 이의리, 이준영, 정해영, 전상현과 마무리 운동을 하고 있다.

## KIA 타이거즈 아마미 캠프를 가다

일본=김여울 기자

YouTube 광주일보

KIA 타이거즈 이범호 감독이 “머리가 아프다”며 웃음을 터트렸다.

2일 KIA의 캠프가 진행되고 있는 일본 아마미오시마의 아마미 구장 불펜에 사람들의 시선이 쏠렸다.

불펜장에는 조상우, 이태양, 김범수, 정해영, 곽도규 그리고 ‘루키’ 김현수가 등장했다.

이중 FA 선수인 우완 조상우와 좌완 김범수는 캠프 첫 불펜피칭을 소화했다. 2026 신인드래프트에서 KIA가 가장 먼저 호명한 우완 김현수도 프로 첫 불펜피칭에 나섰다.

조상우는 지난 1년 KIA 유니폼을 입고 뛰었던 만큼 ‘새 얼굴’들의 움직임에 관심사가 됐다. 분주하게 시즌 밀그림을 그리고 있는 이범호 감독도 불펜에서 이들의 피칭을 지켜봤다.

필끔치 수술 후 복귀 시즌을 준비하고 있는 좌완 곽도규가 50개의 공을 던지면서 컨디션 점검을 했고, 두 번째 피칭에 나선 우완 이태양은 40구를 시험했다. 우완 조상우가 35구, 좌완 김범수가 30구를 소화했고 우완 정해영과 우완 김현수는 각각 25구와 20구를 던졌다.

조상우·이태양·정해영·김현수 등

아마미 캠프 첫 불펜피칭 소화

‘필끔치 수술’ 곽도규 50구 던져

우완 신인 김현수 인상적 활약

마운드 재건, 최상의 분위기

우완 흥건희, 좌완 양현종, 우완 네일도 드릴 운동을 위해 불펜장에서 공을 던지면서 이범호 감독의 눈은 분주하게 움직였다.

불펜 피칭이 마무리된 뒤 이범호 감독 얼굴에는 웃음이 가득했다.

이범호 감독은 “투수들이 다들 몸을 잘 만들어왔다. 범수, 상우도 그렇고 견희도 서서 던지는데 다들 구위가 좋고 힘이 있었다. 새로 온 선수들이 있는데 다 필승조를 했던 선수들이기 때문에 자기들만의 것을 가지고 있어서 준비 과정에 걱정은 없다”고 이야기했다.

신인 김현수도 이범호 감독에게 강렬한 인상을 남겼다.

이범호 감독은 “깜짝 놀랐다. 인상적이었다. 구위도 있고, 스피드도 있고, 스위퍼와 커브도 좋았다.

포크도 던질 줄 알았다. 좋은 친구가 들어왔다는 생

각이 들었다. 첫 피칭이지만 상당히 인상적이었다”고 호평했다.

새로 합류한 베테랑들로 불펜을 강화하게 된 이범호 감독은 ‘신예 선수’들로 다양한 마운드 옵션을 준비할 수 있게 됐다.

앞서 이도현도 불펜피칭에서 이범호 감독의 박수를 받았고, 김태형과 함께 또 다른 선발자원으로 박찬호의 FA 보상 선수인 흥민규도 가세했다.

선발 자원으로 우선 뛸 선수는 신인 김현수도 불펜에서도 충분히 상대를 압도할 수 있는 구위를 보여준 만큼 이범호 감독은 행복한 고민에 빠졌다.

비시즌을 잘 보낸 선수들로 KIA는 최상의 분위기에서 선의의 경쟁을 펼치면서 ‘마운드 재건’을 준비하고 있다.

고향팀에서 새로운 출발을 준비하는 이태양은 “야구만 잘하면 된다”고 웃었다.

이태양은 “두 번째 불펜 피칭이었는데 비시즌에 몸을 잘 준비해 와서 생각한 대로 진행되고 있다. 어떻게 하면 포수를 향해 전진력을 키울까를 생각하면서 중점적으로 하고 있다”며 “범수는 20살 때부터 뛴다. 범수는 내가 있고, 나에게는 범수가 있어서 생활하는 데 큰 어려움은 없다. 분위기가 너무 좋다. 야구만 잘하면 될 것 같다. 감독, 코치님도 편하게 해주신다. 야구 외적으로 스트레스가 없어서 선수들이 야구만 잘하면 될 것 같다”고 2026 시즌 재계약에 대한 기대감을 이야기했다.

/글·사진=wool@kwangju.co.kr



KIA 제임스 네일과 올리가 2일 아마미 구장 불펜장에서 투구폼에 대해 대회를 나누고 있다.

## “FA 책임감으로 팀이 정상에 서게 하겠다”

KIA 김범수 ‘행복야구’ 다짐

어린 선수들의 진지함에 놀라  
가을 야구 생각하며 속도 조절  
공에 영혼 실어 무조건 잘할 것

KIA 타이거즈의 김범수(사진)가 새 유니폼을 입고 ‘행복야구’를 하고 있다.

한화에서 활약했던 좌완 김범수는 지난달 21일 계약 기간 3년, 계약금 5억원·연봉 12억원·인센티브 3억원 등 총액 20억원에 KIA와 FA 계약을 맺었다.

김범수는 아마미오시마 스프링캠프 출발을 앞두고 뒤늦게 행선지가 결정되면서 긴장감 속에 KIA 선수로서의 여정을 시작했다.

“처음에 왔을 때는 공항에서부터 긴장했다. 신인 때 캠프 가는 마음이었다”면서 웃는 김범수는 “한 던 지나고 같이 운동하니까 재미있고 또 다른 게 보인다. ‘이렇게 야구하는구나’를 배우고 있다. 어린 선수들을 처음 봤는데 놀랐다. 이렇게 진지하게 운동할 것이라고 생각하지 못했는데 열심히 하는 모습에 놀랐다. 다들 열심히 한다. 같이 열심히 할 수 있다는 게 너무 행복하다. 다 잘 쟁겨주고 다가와 줘서 재미있게 행복하게 하고 있다”고 새 팀에서의 생활을 이야기했다.

어린 선수들에게 배우고 있다는 김범수이지만 FA라는 책임감에 먼저 움직일 수밖에 없다.

김범수는 2일 스프링캠프 첫 불펜피칭에 나서 30개의 공을 던졌다. 예정됐던 것보다는 조금 빠른 불펜 피칭이었다.



김범수는 “원래 다음 텐에 피칭 들어가는 것이었는데 마운드를 밟은 지 오래돼서 코치님과 상의해서 일찍 던졌다. 지금 천천히 가고 있다. 이런 페이스는 처음이라서 당황스러웠다. 혼자 불안해서 마운드를 밟았다”며 “(이)동걸 코치님이 가을 야구까지 늦게까지 공을 던졌으니 천천히 하자고 하셨다. 코치님이 편찮다고 캐치볼 시간 충분히 활용하면 된다고 하셔서 천천히 하고 있는데 나쁘지 않은 것 같다. FA로 왔기 때문에 주어진 스케줄만 하면 안 된다. 몸상태도 편찮아서 상의해서 맞췄다”고 언급했다.

또 “감 잡는 데 포커스를 둔 피칭이었다. 원래 가지고 있는 구종이 잘 되는지 체크했다. 작년보다 커브가 좋아진 것 같다. 각도 커진 것 같고 브레이킹도 빨라진 것 같다. 코치님들도 뒤에서 보

시는데 커브가 좋아진 것 같다고 했다”며 “다음에는 시합 위주의 피칭을 들어갈 것 같다. 전력으로 타자가 있다고 생각하고 개수를 올려갈 예정이다”고 설명했다.

자처해서 불펜 피칭을 앞당긴 그는 ‘무조건 잘 하자’는 각오다.

김범수는 “무조건 잘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다. 잘하고 싶다고 해서 잘하는 것은 아니지만, 공 하나 하나에 영혼을 실어서 잘할 수 있게 포커스 잘 맞추겠다. 내가 못 하면 구단도 나도 손해다. 팀 자체가 손해니까 잘하는 것에만 신경 쓰겠다”며 “동걸 코치님이랑 오래 했고 던지는 스타일 잘 아니니까 무리하지 말고 시즌에 맞춰 하라고 말씀하신다. 조금 힘들거나 그러면 빨리 이어가면서 시즌에 포커스를 맞추라고 하시는데 몸상태가 좋기 때문에 큰 차질 없이 준비할 것 같다”고 말했다.

무엇보다 동료들과 하나가 돼 서로 배우고 이끌면서 가겠다는 각오다.

김범수는 “(지난해 KIA) 부상 선수도 많았고 어린 선수들도 많아서 자기만의 야구 철학이 없어서 흔들린 것 같다. 야구를 하다보면 그런 날도 있고 그런 해도 있다. 어느 순간 잡하는 해가 있다. 그런 것 경험해 봤고 우승해 본 선수들이다”며 “대인이, 성범이 형, 선빈이 형 등 KIA 타자들이 나에게 강했다. 챔피언스필드에서 기억이 안 좋다. 악했다. 챔필에서 안 좋은 기록이 하나 빼지게 됐으니까 더 좋은 기록으로 야구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웃었다.

그는 이어 “좋은 제시로 구단에 들어왔는데 시즌에 잘 맞춰서 아프지 않고 팀 잘 이끌어서 중심에 서서 정상에 올라갈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글·사진=wool@kwangju.co.kr

## 휴식 끝·연승도 끝…아쉬운 페퍼스

흥국생명에 1-3 패…조이 37점에도 범실이 ‘발목’



특히 2세트 서브 범실로 추격의 흐름이 끊겼고, 공격 전개 과정에서의 판단 미스와 네트 터치 등 공격 범실이 겹쳐며 경기 리듬이 흔들렸다.

양 팀은 공격 성공률에서는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지만 범실 관리에서 차이가 뚜렷했다.

페퍼스는 서브·공격 범실이 누적되며 리시브까지 불안해졌고 결국 세트 막판 리드를 흥국생명에 넘겨줬다.

조이를 주축으로 4세트 마지막까지 21-23까지 따라갔지만, 한 점 한 점이 아쉬운 승부처에서도 범실이 겹쳐며 흐름을 되찾지 못하고 경기를 끝냈다.

세트별로도 아쉬움이 남았다.

1세트를 내준 뒤 2세트에서는 조이를 중심으로 반격에 성공했지만, 3세트부터 다시 범실이 늘어나며 리듬이 급격히 무너졌다.

네트 앞에서의 결정력과 수비 연결 역시 매끄럽지 못한 장면이 이어졌다.

반면 흥국생명은 인정적인 경기 운영으로 흐름을 지켰고, 상대 범실로 생긴 틈을 접수로 연결하며 집중력을 발휘했다.

페퍼스는 이번 경기에서 공격력이라는 강점과 다시 한번 확인했지만, 범실 관리와 세트 운영이라는 숙제를 다시 한 번 떠안았다.

페퍼스는 오는 4일 흄에서 열리는 현대건설과의 경기에서 분위기 반전을 노린다. 조직력 회복과 집중력 강화가 승리의 관건이 될 전망이다.

/박연수 기자 training@kwangju.co.kr

